

ITS신학대학원 졸업식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ITS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코비나 소재)이 지난 6월12일에 제37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개교 이후 1천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목회자와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해 온 ITS신학대학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현재17개국의 학생들이 캠퍼스 및 온라인수업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ITS신학대학원 명예이사장)의 설교, 제임스 리 총장 (구약학 Ph.D.)의 격려사, 로스퍼디 박사(교회사 Ph.D.)의 축사로 진행됐다.

동영상으로 제공된 설교에서 이영훈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 -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첫째,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로써 담대하게 사역하라, 둘째, 사역의 목표를 모든 민족을 제



ITS신학대학원 제37회 졸업식에서 기도하는 졸업생과 교수진

자삼는 것으로 하라, 셋째,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도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졸업생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그동안 가르치고 훈

련했던 교수진들로부터 간절한 기도를 받았다.

ITS신학대학원은 2006년에 미주 한인대학들 중 가장 먼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정회원 인준을 받았다. ATS는 하버드대, 예일대, 듀크대 신학

부 등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들이 가입되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가기관이다.

ITS 신학대학원은 신학석사 (MATS 및 Th.M), 목회학석사 (MDiv), 목회학박사 (DMin)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100퍼센트 온라인 수업으로도 동일하게 ATS인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글로벌 세계 속의 사역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진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그리스, 인도, 중국, 한국 출신 등이다. 수업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말씀 및 신학 훈련과 더불어 타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과 훈련의 장이 되고 있다.

ITS신학대학원은 9월 7일 개강하는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임을 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8월 6일까지이며 8월 12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ITS는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국어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it-sla.edu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어프로그램 입학과 714-718-5239, admin.kor@itsla.edu 로 하면 된다.

美 침례교, 역사상 첫 성전환자 목사 안수

블루밍턴대학침례교회, 로라 베서니 부클레이터에게

인디애나주의 한 교회가 침례교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목사를 안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로라 베서니 부클레이터 목사는 지난달 블루밍턴대학침례교회(University Baptist Church of Bloomington)에서 안수를 받았다.

부클레이터는 15일 CP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기독교 작가 레이첼 홀드 에반스와는 만남이, 어린 시절 가졌던 목회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부클레이터는 “그녀는 내게 충직하고 확신에 찬 LGBTQ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나는 ‘전환 프로젝트’(The Reformation Project) 공부를 시작했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 스톤월 인으로 가는 첫번째 프리맘 허그 투어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윌셔침례교회를 통해 침례교 문화 속에 다시 들어갔는데, 당시 그 교회는 열려 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 교회를 섬기라는 소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수는 특정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와이오밍주 그린 리버에 있는 연합그리스도교회에서 4개월 동안 ‘인턴 목사’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텍사스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등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이들은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가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침례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성전환자 로라 베서니 부클레이터. ©전환 프로젝트 영상 캡처



침례교 역사상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성전환자 로라 베서니 부클레이터. ©전환 프로젝트 영상 캡처

지난 2016년 설교에서 제프리스 목사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이 적용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물음표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적혀 있다. 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3개가 아닌 2개”라고 강조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성 정체성 혼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마음으로 다뤄져야 하는 정서 장애다. 성 정체성 혼란이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사회 운동가들에게 이용되어선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적인 차이를 부정하고 싶어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항”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브릿지교회 창립30주년 Festival

김재호 목사(브릿지교회)

찬양 간증집회 JULY 4
 지명현 목사 (소리엘 / 하나님이사여, 아픔의 축복 등 다수)
 7월 4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찬양 간증집회 JULY 11
 이은수 목사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등 다수)
 7월 11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JULY 23/24
 최홍주 목사 (PCIGA 총회장, 에브리데이교회)
 7월 23일 (금)~7월 24일 (토) 오후 7:30 (2일간)

비전(Vision) 집회 JULY 25
 김승년 목사 (베른 루지 비전교회, 1대 담임목사)
 7월 25일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1:00
 *2부 예배시 장로 &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감사 및 위임예배 JULY 25
 2021년 7월 25일 (주일) 오후 4:00

THE BRIDGE CHURCH 브릿지교회 T.800.484.0992 3045 Old Conejo Rd, Newbury Park, CA 91320

브릿지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교회와 이웃사회를 연결하고, 세대와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제8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어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가 2021년 베델 장학생을 모집한다.

베델교회 청년(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금은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예정 학생이나 풀타임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품성과 미래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사회 봉사를 실천하여 가족이나 동료 또는 영적 리더들로부터 추천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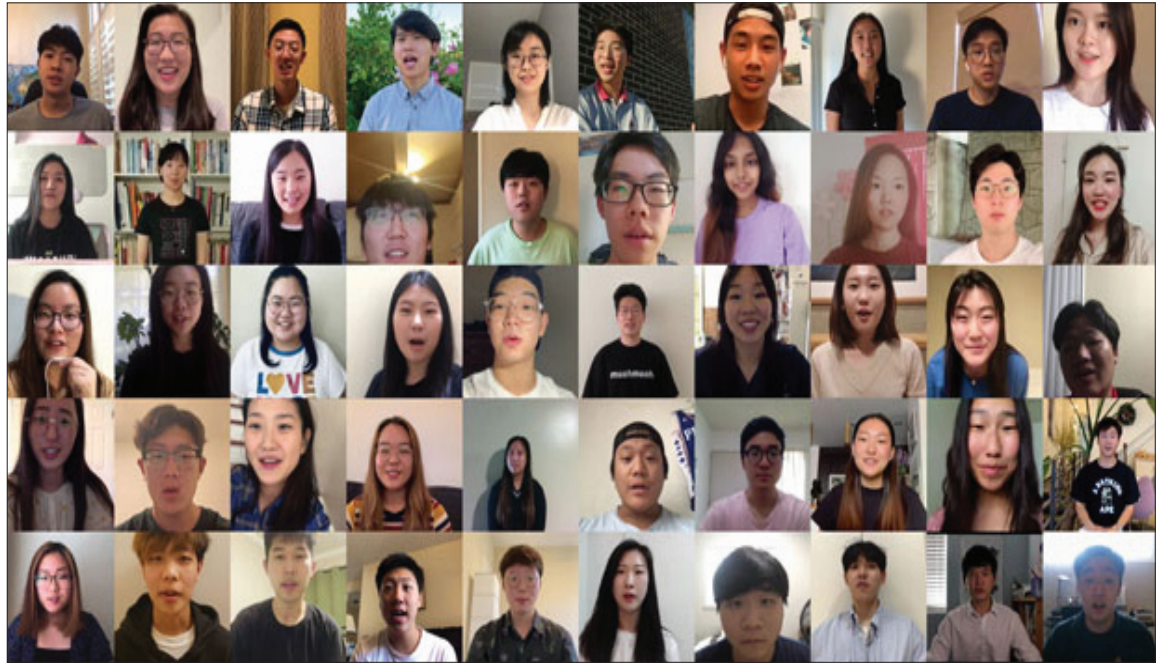
신청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이나 대학교 재학생으로 베델교회 등록교인이거나 등록 교인의 자녀, 또는 지역사회 교회의 교인이거나 그 자녀, 또는 기독교 사역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선교사나 목회자의 자녀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G.P.A. 3.3 이상을 유지하고 공인된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아 2021년 가을 입학 예정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공인된 대학에 재학 중으로 G.P.A. 3.0이상으로 학기당 최소 12학점 이상을 등록한 풀타임 대학생이어야 한다.

장학금은 일시불로 수혜자에게 지불되며, 학비, 부가 비용, 주거, 교재 구입 등 학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4일(주일)까지며 선발 결과는 7월 19일(월) 이후 통보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는 전화 949-854-4010 또는 이메일 scholar-ship@bkc.org로 할 수 있다.



2020년 베델장학생 ©베델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이단 포교활동도 비대면으로 옮겨가는 추세”

남가주 프라미스교회(담임 황여호수아 목사)는 오는 27일(주일) 오전 10시, 한선희 목사를 강사로 SNS 이단 분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선희 목사는 SNS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의 포교 현황과 이단 교리의 문제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한선희 목사는 “미디어 시대가 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

들이 유튜브나 줌, 소셜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단들도 ‘대면 포교’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대면 포교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온라인 포교를 통해 어느 때 보다 이단교리에 쉽게 미혹 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포교활동을 이어가

는 이단들의 교리를 집중 해부하고,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714-769-6114, 213-484-2574



한선희 목사

“병원 원목(채플린),GMU에서 준비하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인 제임스 구 교수

피스 등의 기관에서 직접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플린 준비를 위한 학위 과정과 준비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현직 원목 사역을 담당하는 조셉 최 채플린이 참석해 실제 채플린 사역에 대한 안내와 준비를 위한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방법은 GMU 홈페이지(<https://www.gm.edu/online>)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이메일 admissions@gm.edu로 할 수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최규남 총장, 이하 GMU)는 오는 21일(월) 오전 11시, 병원 원목(채플린) 준비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채플린이 되기 위한 과정과 사역의 장점, GMU의 채플린 협력 및 준비과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병원 원목 과정은 신학생들이 졸업 후 교회 사역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특별히 이번 강의는 병원이나 호스

한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는 현재 미 연방 교육국 USDE가 인정 학위 인가기관인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서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과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강의는 100% 통신교육이 제공되며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강의가 진행되며 2021 가을 학기도 하이브리드 강의가 제공된다.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 연구회 CRAAHA
The Christian Research Association Against Heresy in America

SNS 이단 분별 세미나

#일시 : 2021년 6월27일(주일) 10:00am
#장소 : 남가주 프라미스교회(황여호수아 목사 시무)
#주소 : 706 S. Lemon St., Fullerton CA 92832
#전화 : 714-769-6114 / 213-484-2574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특허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립니다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HOUSE CHURCH MINISTRIES INTERNATIONAL
가정교회/사역원

제237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평신도가 살아나는 목회!

신약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경적 교회를 현실로!

[날짜] 2021년 7월6일(화) ~ 7월11일(일)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신청기간] 2021년 5월 25일 ~ 6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www.seoulbaptist.org/>
[문의처] 713-896-9200 / sbch.office@gmail.com

영어 세미나도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온라인 등록] <https://nlftx.org/>
[문의처] 713-896-7755 / seminar@nlfhouston.org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회중 NLF

가정교회에 대해 궁금하세요?

GBC 미주 복음방송 (AM 1190 또는 <http://www.kgbc.com>)에서 방송되는 “GBC초대석” 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수관 목사를 통해 들어보실수 있습니다.

CDC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대면 세미나입니다.

미주 한인교회 리오픈2 주님의영광교회 “더욱 깊어졌던 기간”

신승훈 목사 “팬데믹 이후 교회들, 대대적인 전도운동에 나서야”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기독일보



주님의영광교회 주일예배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면 재개방 전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독일보

LA 시내에 위치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현재 예배인원의 70% 가량이 현장으로 복귀했다. 전면 재개방이 시작되는 6월15일 이후에는 대면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더욱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주님의영광교회는 팬데믹 중에 교회의 문을 단 한 차례도 닫지 않았다. 담임 신승훈 목사는 주일예배를 비롯,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모든 설교강단을 지켰다. LA지역의 코로나 확진 추이에 따라 성도들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자율적으로 선택했다. 지역감염이 가장 심각했을 때는 성도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중 몇몇 성도는 끝까지 현장예배를 고수하기도 했다.

항상 예배의 문을 열어 놓은 교회의 방침으로 인해 백신 보급 이후 현장예배에 복귀하는 성도들의 비율도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높았다. 신목사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예배는 신앙에 있어 믿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회가 성도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예배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양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약 시나 지방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올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벌일 것을 각오하면서 지킨 예배였다. 몇몇 미국교회들은 캘리포니아주나 LA시를 상대로 실제 소송을 진행했다. 마침 연방대법원은 교회의 예배영역을 정부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주님의영광교회가 예배 현장을 더욱 지킬 수 있는 힘이 됐다.

1년 성경 2독 기준, 성도들 신앙심 높이는 계기

교회가 예배 문을 항상 열어줬지

만 결코 비상식적으로 현장예배를 강행하거나 무리한 적은 없었다. 예배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유지했고, 예배 참석을 각자의 자율에 맡겼던 성도들 또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LA지역은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특히 11월에 큰 고통을 겪었다. 지역에서 많게는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였다. 성도들 또한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해야 했고, 오랜 기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오다 지역의 다른 교회를 개척했던 젊은 50대 목회자를 잃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마치 주변이 코로나로 모두 포위된 듯한 당시의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의영광교회는 이 위기를 성도들의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 신목사는 “이 기간 중에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었다”면서 “성경을 꼭 읽고 그것을 목장별로 나누게 했다. 가장 은혜받은 성경구절이나 여러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교회가 제시한 성경읽기의 기준은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이다. 적지 않은 분량이었지만 성도들은 성경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성경구절을 통한 은혜 나눔은 자연스럽게 기도제목 공유로 이어졌다. 서로 기도할 내용들을 나누고 특히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경우 서로 약속을 정해 함께 기도했다. 이에 대해 신목사는 “비록 만날 수는 없는 기간이었지만 성도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성도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는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연구하는 테스크포스도 별도로 만들었다.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할 것인가를 연구했고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양육을 시도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 최소한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소파에 발을 올리지 말고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할 것과 현금봉투를 미리 가져다 놓는 등의 기본적인 예배준비는 철저히 지킬 것을 권면했다. 자칫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을 강조한 결과 성도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정상화 피부로 느껴져...교회가 변화되는 계기 되길”

미국이 4월 이후 대대적인 백신 보급으로 빠르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아 가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 또한 코로나 감염수치가 안정된 지 오래다. 신목사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 주일 주변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최근 3-4개월 안에는 성도들이나 그 주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바가 없다. 상황은 현저하게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코로나가 준 교훈과 관련,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획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었고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지역은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미국 제1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였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목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많이 변질됐고 특히 큰 교회들의 변질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모두가 먼지보다도 작은 바이러스에 전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봤다. 악한 길을 떠나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목사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중해야 할 교회의 사역을 대대적인 전도운동으로 꼽았다. 신목사는 “사람들이 붙잡을 것이 없고 공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기에 대대적인 전도운동에 교회들이 나선다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시기에 교회가 변화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이

재앙은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들이 이 시기를 놓친다면 지난 긴 고난의 기간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면 재개방을 하루 앞둔 14일 주님의영광교회 새벽예배에는 성도들이 저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며 인사했다. 또 성도들은 신목사와 함께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자’는 구호를 외쳤다.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위축된 성도들의 격려하기 위해 82개의 말씀 주제를 선정했고 매일 새벽 하나씩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날 새벽 신목사의 설교도 복음전파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음전파의 반응과 성도의 자세’(행2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목사는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만일 복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거나 관심조차 없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전면 재개방의 때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굳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굳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 오대목사(예수전도단), 주선목사(성산대 경교회), 이영목사(에스디교회), 송정목사(복음전도), 권준목사(주말미주교회), 신정민목사(동일교회), 유권기목사(중앙교회), 김민석목사(KCC중동교회)
- * 열의 책은 아예 연락처를 주물랄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굳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정신으로 지대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과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사항: GBMV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세계 GBMV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력의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봐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중차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프로-지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요각적인 혈당 강하를 원하시는 분

MEDICAL CHECK 식이 조절이 필요한 분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시는 분 식이 조절이 필요한 분

건강이 염려 되시는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섭취방법
섭취시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식사 30분 전과 잠자기 1시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세요.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봉 구입시 \$79 +Tax 3봉 구입시 \$225 +Tax 6봉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11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멕시코 일주 선교지 방문기(3)”

우리는 드디어 치아파스에 입성했다. 치아파스주의 수도이자 제1도시인 Tuxtla에서 목회하는 우리 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15가정 정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 한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숙소에 도착했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다음 날 아침 8시에 제자 목회자들 10여 명이 숙소로 찾아왔다. 거리가 너무 먼 동문들은 못 오고 아침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제자들이 모였다. 임 사모는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느라 치아파스 방문은 10여 년 만이다. 그 중 졸업한 지 10여 년 만에 처음 임 사모님을 만난 동문들은 사모님을 보고 마마, 마마 사모님 하며 부둥켜안고 불을 비비며 한참 동안 울며 그간의 그리움을 풀었다.

두 오라고 초청을 하고 다음 지역을 향해 떠났다.

그다음으로 San Cristobal 시를 지나 마야 문명의 중심지인 Ocosingo에 이르렀다. 오코싱고는 우리 신학교 졸업자 목사들이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는 지역이다. 약 50가정 정도 산골 곳곳에서 사역한다. 우리들이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고 했기에 약속 장소인 식당에는 이미 제자 목회자들이 20여 명 모여 있었다. 도착해서도 역시 오랜만에 뵈는 임 사모에 대한 환영이 열렬했다. 어느 졸업자는 근 20년 만에 사모를 만난 자도 있었다.

졸업생들에게 4년간 학교생활을 한 중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언가 질문할 때 대부분 졸업생들은 꼬시안(학교 식당)에서 사모님이 학생들의 식사 섬겨주신 것을 첫째로 꼽는다. 4년간 방학을 제외하곤 하루 세기 날마다 60명(앉을 때는 90명)의 식사를 섬겨 주셨다. 그때그때 식사 때마다 임 사모님은 학생 중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파악한다. 누구 불러 오라고 임원을 보내던지 당신이 직접 학생 방을 찾아가서 학생들을 살핀다. 목이 아파 식사를 거르는 학생이 있으면 밤을 먹어야 약을 먹든, 진료를 가든 하니까 식사를 하게끔 챙긴다. 그러니 학생들은 그런 기억으로 사모님을 마마라 부른다. 진심으로 부른다.

오코싱고는 반정부군이 마을을 다스리며 멕시코화 된 카톨릭만이 허락되어 개신교 전도가 어려운 지역이다. 심지어 개신교 전도자나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반대가 심한 곳이다. 그런 중에 우리 학교 졸업한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이 지역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교회 개척을 하였다. 그 결과 그런 지역에서 개신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면 금세 성도가 늘어 예배 처소가 필요하였고 그런 그들을 도와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어느 사이 70여 개의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뜨겁게 만남의 인사들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자기들이 대접한다고 고집했으나 선교사들의 옹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식사하면서 사역자 한명 한명 그간의 사역 보고를 듣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생을 했다.

이번 우리 선교여행 일정에 교회 건축을 완공하여 헌당예배를 드릴 교회도 있다. 이렇게 오코싱고는 개신교회 부흥의 중심에 섰다.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는 우수한 목회자와 교회 개척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멕시코 장로 교단 안에 속한 많은 노회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오직 우리 학교로만 보내기로 결의한 노회들도 생겨났다.

그들의 사역지는 깊은 산골 마을들이다. 교회가 없는 마을들을 찾아 자신들의 가정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 한 가정, 두 가정 모이면서 예배처소의 모습을 갖춘다.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해 이미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한 목사도 있다. 어느 제자는 같은 기간 애를 써도 성도들이 늘지 않고 성도들과 마찰만 일으킨다고 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2023년 10월, 25회 개교기념주간에 있을 멕시코 선교대회에 모

식당에 모인 목회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을 짧게나마 들려주기를 선교사들이 요청했다. 모두 자기 사역에 대한 소명이 뚜렷했고 그중 한 가정은 13곳의 산골 지방 마을을 돌며 기도처소를 맡아 사역하는 자도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다음 주엔 사역지들중 감동이 큰 사역 보고를 소개하겠다. (계속)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② “고린도를 찾아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고대 역사로 미루어 보아 주전 8세기부터 도시 국가를 형성했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Corinth)는 ‘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등과 경쟁할 만큼 힘이 있고 번성했던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한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 주(州)의 수도요 항구도시입니다.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지협(Isthmus)에 있습니다. 지협(Isthmus)이 유명해 고린도 지역 국제 운동 시합인 이스트미아대회(Isthmian Game) 이름이 됩니다.

8배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문화 도시였습니다. 건축술과 수사학은 아테네를 능가했습니다. 학문, 종교, 문화, 무역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가 된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시대를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고대 헬라에는 각 도시의 신들을 위한 축제인 4개의 국제 스포츠 시합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올림피아대회, 델포이의 피티아대회, 고린도의 이스트미아대회, 네메아의 네메아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아와 네메아는 제우스를 위한 축제였고, 이스트미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델포이의 피티아는 아폴로를 위한 제전이었습니다. 고린도 이스트미아대회는 달리기 시합이 유명했는데 이를 고려한 메시지가 고전9장 2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고린도는 B.C. 146년 로마의 뭉미우스(Lucius Mummius)장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 약 100년 동안 고린도는 거의 폐허상태로 있다가 B.C.44년에 로마의 시이저(Julius Caesar)황제가 칙령을 선포하며 로마 식민지로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B.C. 27년에 로마 총독이 고린도에 부임함으로 고린도가 아가야(Achaia)지역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2Km 지점에 레가에움 항구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7Km지점에 겐그리아 항구(롬 16:1)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상업적, 군사적 거점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무역상들이 고린도를 통해 무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방문할 즈음 고린도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여 국제도시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인구는 자유시민이 20만이고 노예가 50만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인 고린도에는 헬라-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 약 3만 명이 유대인이 있었고 고린도에 다수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에즈, 파나마 그리고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의 지형 때문에 B.C. 6세기에 운하 건설이 고려되었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7년에 수천 명의 죄수를 동원하여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19세기 프랑스의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각국의 신들과 각종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12개의 주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유적들은 당시 웅장한 신전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아폴로 신전의 7개 기둥들과 옥타비아 누스 황제 신전 기둥들이 그 시절

의 섬세한 건축술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전 유물은 고린도의 경제적 상황과 건축술을 포함한 문화의 발달을 엿보게 합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들에는 수시로 제물이 있는 제사가 있었고 제물로 사용된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는 비교적 싼 값에 유통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에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애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것은 실존적인 삶의 문제였고 자연이 고린도 교회의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12개의 신전 중에 사람의 여신 ‘아프로디테(비너스)여신의 숭배자들은 종교 행사로 매음을 했습니다. 매음이 종교 행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은 매음에 종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교회를 세울 당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매음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종교적 음행이 고린도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성적 타락은 고대 여러 문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은 성적 부도덕(immorality)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Corinthianize)’라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에서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이 말한다’라는 말은 ‘말이 유창하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하간 성적 타락은 고린도의 문화였고, 이런 도시의 문화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이 고린도 교회 윤리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사도행전의 고린도 사역이나 고린도 전후서는 1세기 고린도 도시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를 살펴볼수록 섬세한 문화적 감각을 가진 사도 바울에 감탄합니다. 아울러 고린도 현장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도전과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풍요, 화려, 타락으로 특징되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오늘날 예배음악...탐미주의(Aestheticism)에 물들고 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6)

본지는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상 교수의 소논문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을 연재합니다. 오늘의 예배 음악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4) 현대 교회 예배에서의 찬양

공식적인 회중 찬양의 모체가 되는 미리암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찬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꾸미려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찬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이 드린 찬양의 내용과 그 중심은 경배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를 송축(축복)하는 가사가 있었다. (출15:20-21, 출24:1) 이와 같은 찬양의 모습은 구약에서 언급한 최초의 회중 찬양으로써 오늘날 현대 교회의 예배 찬양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을 수 있다. 지난 글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 교회 찬양의 현실을 진단하고, 예배 찬양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찬양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2)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며 축복을 드러내는 찬양

오늘날 예배음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탐미주의(Aestheticism)에 물들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려고 복잡한 리듬을 구사한다. 아름다움을 더해 예술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려고 기본 화성의 단순미를 벗어나, 화려하고 복잡한 화성(Harmony)을 더 많이 구사하려고 한다. 아울러 웅장하고 화려한 연주를 위해 다양한 악기를 등장시켜 오케스트레이션 (Orchestration)을 만들고 있다. 평음에 가까운 악기들의 소리에 때로는 날카로운 소리를 더해가며 오늘날 예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소리를 만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악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게 한다. 악기들의 소리에 파묻혀 찬양대의 찬양에 담긴 가사를 놓치게 되거나 또 회중찬양에서



©pixabay

는 반주 소리가 너무 커 회중의 소리를 덮어버린다. 찬양 안에 담겨진 가사도 놓쳐버리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보다는 그저 감상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우리는 곡조에 더욱 귀를 기울이다가 가사의 영적 의미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음악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도구로만 쓰여질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들을 고백한 내용을 함께 동감하며 송축하는 찬양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음악과 악기의 반주 소리에 정작 드러나야 할 가사를 가리우게 된다. 그것이 바로 목적과 수단을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된다.

서양음악의 역사를 통해 교회음악의 발전사를 보면 르네상스(Renaissance period)가 되면서 9세기 말부터 시작된 다성음악이 꽃을 피우며 크게 발전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 요인은 중세 기독교의 절대 신본주의 규범에서 벗어나고 대 그리스의 인간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문화 예술에 있어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난 인간성 회복이라는 전제하에 창의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창작 예술을 자유롭게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다성음악이 시작 된 이후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약 5세기(11-16C)에 걸쳐 노틀담 악파

(Notre Dame School), 부르고뉴 악파(Bourgogne School), 그리고 플랑드르 악파(Fladour School)의 음악인들이 다양한 음악적 기법들(디스칸투스, 클라우스라(Discantus & Clausula) 아이소리듬(Iso-rhythm), 칸투스 펠미스(Cantus Firmus), 콘트라 팩툼(Contrafactum), 페로디(Perody), 모방 대위법(Imitation Counter point) 등을 개발 하여 화려한 음악으로의 탐구가 계속 되었다. 두 개의 성부로 시작한 다성음악이 여섯 성부,팔 성부로 까지 확대하며 소위 아름다움을 추구한 예술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나가게 됐다.

이렇게 발전하는 예술세계에 반해 예배음악의 본질과 목적은 점점 더 퇴색되어 갔다. 화려한 음악에 대한 추구하고 관심은 높아진대 반해 가사(Text)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다. 당시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가사의 의미를 담아 악상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지 않고, 먼저 음악을 만들어 곡을 완성하고 거기에 가사를 적용하는 작곡기법을 사용했다. 이들에게 있어 작곡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안에 담았던 가사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급기야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종교 개혁(Counter Reformation 1545-1563년)을 통해 이와 같은 이슈를 하나의 문제로 삼게 되었다. 당시 교황 피우스 4세(Pope Pius IV 1499-1565)는 트렌트 종교회의(Council of Trent)에서 세속화된 교회 음악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교회음악이 상송을 폐리디하고 세속 선율을 정선율에 사용(Cantus Firmus)한 점, 악기의 무모한 사용, 가사를 잘 알아듣지 못하

도록 복잡하게 음악을 만드는 모방 대위법(Imitation Counterpoint) 등을 문제로 꼽았다. 여기에 가장 큰 이슈로 지적 된 것이 가사를 알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다성음악이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일시적이었지만 다성음악이 폐지되고 한동안 단선율의 음악만을 사용하게 됐다.

이 같은 교회음악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의 예배음악 바라보게 된다. 이 시대 예배 음악이 어찌보면 르네상스 예술의 찬란함 보다 훨씬 더 화려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한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예배음악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랑하며, 축복을 드러내는 찬양이 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오늘날 예배음악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축복하고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사를 위한 도구로만 쓰여져야 한다. 너무 복잡한 리듬이나 하모니를 구성하려 노력하지 말고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자크 본 알멘(Jean-Jacques von Allmen 1917-1994)은 그의 책 Worship: Its Theology and Practice 에서 “예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풍부함이 아닌 정결함이다. 참 아름다움이란 정화의 도장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면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심미적, 자기 중심적 미사여구, 비정상적 성장 등 오늘날 예배 찬양이 가진 문제점을 지양하고 예배 찬양의 우아함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축복하고 송축하는

그 외침은 피조물인 인간의 소리(Human Voice)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악기들의 소리가 너무 크다. (물론 악기 혼자 연주할 때는 다른 것이다) 평음에 가까운 전자악기들. 그것을 조절하는 음향 기술로 더 크게, 더 크게 만들려 한다. 이런 소리에 묻혀 인간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예배자들 자체의 소리가 우선이지, 인간들이 현대 문명의 기술에 의해 만들어 놓은 악기 소리들이 우선이 아닐 것이다.

베리 리쉬(Barry Liesch)는 그의 책 The New Worship 에서 “예배 음악의 본질과 기준은 어떠한 외적인 형식과 심미적인 내용, 혹은 어느 양식적인 탁월함을 근거로 한 것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고상함과 고귀함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이라 하더라도 이들 자체가 예배자로 하여금 예배를 더욱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목적과 수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문명의 발전에 의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지라도 분명 인간의 숨소리와 더불어 생기가 들어있는 그 생명의 울림.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다. 비록 연륜이 깊어 노쇠해져 가는 푸석푸석한 쇠 소리가 되어갈지라도 말이다.

미리암과 백성들이 드린 찬양,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드린 찬양 속에서 볼 수 있는 찬양은 인위적인 꾸밈이 없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에서 “소유하고픈 충동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오늘날 예배음악이 너무나 예술적 아름다움의 깊이를 소유하고픈 탐욕에 빠져서 그 신비로움에 절대 복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음악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존회원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서인,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美 남침례회 총회장 에드 리튼 목사 “재임 기간 벽 아닌 다리 세우겠다”

미국 남침례회(SBC)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리뎀션교회(Redemption Church)의 에드 리튼(Ed Litton) 목사가 “재임 기간 벽이 아닌 다리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리튼 목사는 지난 15일 임원 선거에서 총회장에 당선됐다. 교단 최초이자 유일하게 흑인 총회장이었던 프레드 루터(Fred Luter) 목사의 추천을 받아 후보에 오른 리튼 목사는, 오랫동안 인종적 화해를 추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리튼 목사는 결선 투표에서 6,834표(52%)를 얻어 6,278표에 그친 마이크 스톤(Mike Stone) 목사를 앞섰다.

이번 선거는 교단 내 성학대 및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총회 전 실



에드 리튼 목사. ©리뎀션교회 홈페이지

행위원장 마이크 스톤(Mike Stone) 목사를 비롯한 실행위원들은 성학대 의혹을 잘못 다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리튼 목사는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분열된 교단이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왜 우리가 가족인지, 가족의 초점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고 믿는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이 상처받고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 또 교단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4년부터 앨라배마 교회를 이끌었던 리튼 목사는 “지역교회 목회자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면서 “교단을 하나로 묶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 예수님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팀 켈러 목사 “취장암 투병... 매우 고무적이다”



팀 켈러 목사. ©TGC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의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목사가 취장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매우 고무적인 소식을 전해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팀 켈러 목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 업데이트: 지난 5월 스캔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었다. 덜 공격적인 화학 요법에도 불구하고, 암이 자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월 말 수술을 통해, 9개월 동안 변하지 않던 결절 몇 개를 제거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 시점에서 눈에 띄는 암은 취장에 있는 1차 종양 뿐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거나 더 커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히 12:1~2)”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을 믿는다. 난 매우 잘 있고, 글을 쓰며, zoom 이용해 손자들과 대화하며 즐겁게 지낸다”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5월 취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한 달도 안 돼 자신의 병을 공개적으로 알린 그는 “하나님께서 의학적 수단이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암이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올해 4월 CP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취장암은 특히 1년 안에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공격적인 질병이며, 올해가 매우 어려운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몇 달이 아닌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아내 캐시와 저는 매우 감사하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 것 같다”고 했다.

팀 켈러 목사는 취장암 선고

를 받기 전 자신의 저서 “두려움의 시대에 희망(Hope in Times of Fear):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의 원고를 집필하던 중, CP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의 부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5월, 당시 70세이던 그는 취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켈러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당신이 아주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부활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반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2016년 출간된 “감춰진 크리스마스(Hidden Christmas)”의 설명서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자신의 암 선고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켈러는 회상했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반쯤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나는 돌아가서 깨달았다. 나도 부활에 대해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차원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는 것 말이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최근 올린 글에서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준비가 돼 있다. 몇 달이 아닌 몇 년이 남아 있도록, 화학요법이 효과적이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준비돼 있다. 영적으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부활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미경 기자

美 법원 “트랜스젠더 케이크 제작 거부, 차별금지법 위반”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처

자유수호연맹 “신념에 따라 일할 자유 지킬 것”

미국 콜로라도주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가 트랜스젠더 생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덴버지방법원 A. 브루스 존스(A. Bruce Jones) 판사는 15일(현지시각) 필립스가 오팀 스카디나(Autumn Scardina)의 생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해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카디나의 ‘트랜스 지위’ 때문에 필립스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부으로써 불법적인 차별을 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 “필립스의 아내는 당초 약 6~8명의 사람들에게 파란색 설당 장식을 걸었던 분홍색 케이크

를 만드는 데 동의했으나, 스카디나가 그 디자인 속에 숨겨진 의미를 공개한 뒤에 제작을 거부했다”고 했다.

존스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카디나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기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색깔을 선택했다고 밝히기 전까지 요청한 케이크를 제작할 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들의 성별을 반영하는 케이크를 만들 의향이 있다. 또 다른 고객들을 위해 똑같이 생긴 케이크를 ‘기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케이크 디자인이 더 복잡했거나 예술이 포함됐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기인한 메시지를 명백히 언급했다면 분석은 달라질 수 있

다”면서 “피고인의 표현적 행위 주장은 케이크로 전달된 메시지를 피고에게 돌릴 합리적 관찰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요청된 케이크를 제공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어떤 상징적·표현적 연설의 형태에 해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잭 필립스의 법률 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DF) 크리스틴 왜고너(Kristen Waggoner)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왜고너는 “급진적 활동가와 정부 관리들은 잭과 같은 예술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핵심 신념에 반대되는 결혼과 성에 관한 메시지를 홍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며, 모든 미국인들이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안에 깊이 간직된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살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필립스는 기독교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식 및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한 케이크 제작을 반대하면서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극복해 왔다.

지난 2018년 미 대법원은 “콜로라도 시민위원회가 2012년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7대 2로 판결했다.

강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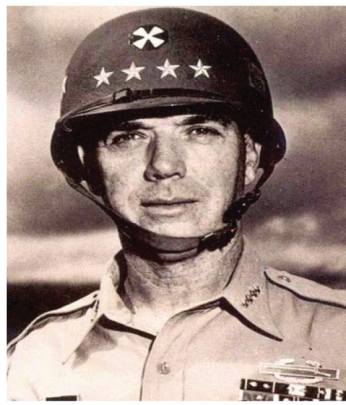
Never Ending Story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다큐영화 (제작참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준 180 만명의 미국군용사들중, 34,000 전사자들과 13만 부상 군인들, 그리고 3,700명의 실종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40구의 유해들...

아울러, 이들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화를 바칩니다.

현재 4개국 (한,미,러,중) 현지 촬영중이며, 이번 6.25 71주년때 상영될 수 있도록 뜻깊은 제작후원을 바랍니다. (감독 윤학렬)



** 후원과 문의는 아래 미국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작선교회로 해 주시면 되고, 모든 후원자와 단체의 명단은 영화자막에 게재합니다 **

탈북유학생 박연미 “美 대학교육, 北 세뇌교육과 비슷”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탈북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탈북자가 “미국 대학 세뇌교육이 북한과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연미 씨는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6년 한국 대학을 다니다 콜롬비아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미국에 온 과정을 이야기하며 최근 이 대학에서 인문학 학위를 취득하면서 겪은 좌절감에 대해 밝혔다.

박 씨는 “이 정도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들이는 만큼 대학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강요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미국은 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북한과 닮은 점이 정말 많다. 그 점이 우려했다”고 했다.

박 씨는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 직원에게 ‘제인 오스틴 같은 고전 문학을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혼이 났다”며 “그 작가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을 모르냐면서 ‘그는 편견만 가득해서 금방 널 세뇌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성별과 관련된 언어 문제는 박 씨를 더 놀라게 했다. 박 씨는 “영어는 저에게 3의 언어다. 지금도 난 ‘그녀’ ‘그녀’를 헛갈려 말한다. 근데 이젠 ‘그들’이라고 말하라고 한다”며 “완전히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명이 퇴보한 것처럼 느꼈다”며 “북한은 정말 미쳤다. 그러나 이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과 여러번 논쟁하면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다.

박 씨는 “나는 13살 때 굶주린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자유를 위해 고비 사막 한복판을 건넜다.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힘들게 싸웠으면서도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정부에 자신의



박연미 씨. ©facebook

권리와 권력을 주고 싶어 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나를 두렵게 한다”라며 “북한에서 나의 지도자(김정은)가 굶주리고 있다고 문자 그대로 믿었다. 그는 가장 똥똥한 사람이다. 누가 그걸 믿겠나. 누군가 내게 사진을 보여주고 ‘그를 봐. 그는 가장 똥똥해. 다른 사람들은 다 말랐어’라고 했다. 나는 왜 그가 똥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씨는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13살이던 2007년 어머니와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에게 붙잡혔으며, 선교단체 도움으로 풀려나 고비사막을 건너 2009년 한국으로 왔다.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 2014년 BBC 선정 ‘올해의 세계 100대 여성’에 선정됐으며, 2015년 영문 회고록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을 집필했다.

박 씨는 동국대에서 수학 중이던 2016년 미국 아이비리그 컬럼비아대로 편입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미국인과 결혼해 현재 뉴욕에서 거주 중이다.

이미경 기자

美 흑인 목회자 “파트타임 성도 아닌 풀타임 기독교인 되자”



토니 에반스 목사. ©아이콘 미디어 그룹

최근 주일설교를 통해 교회 내 인종적 긴장을 인정했던 미국 토니 에반스 목사가 기독교인들에게 ‘파트타임 성도’(part-time saints)가 아니라 ‘풀타임 기독교인’(fulltime Christians)이 되길 촉구하며 발전을 위해 연합하자고 권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토니 에반스 목사는 지난 13일 부터 열린 남침례교 국제선교위원회와 북미선교위원회에 공동 개최한 ‘샌드 컨퍼런스2021’에 참석한 1만여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소명은 파트타임 성도가 아니라 풀타임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천국을 이 땅으로 갖고 올 소명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를 침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지켜봐왔다”라고 했다.

15일과 16일 내슈빌에서 진행되는 남침례교 연차총회에 앞서 열린 샌드 컨퍼런스는 북미 전역의 목회자, 가정, 교회가 이를 동안 모여 복음을 위해 함께 선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기념하는 모임이라고 CP는 덧붙였다.

오크클리프 바이블 펠로우십(Oak Cliff Bible Fellowship) 담임이자 달라스 신학교(Dallas Theological Seminary)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토니 에반스 목사는 축구에 비유해 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문

화적 분열을 강조했다.

토니 에반스 목사는 “공정한 게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독교인이 심판자로서 섬겨야 한다”라며 “진정한 문제는 공식 당국이 상대팀 유니폼을 입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제3자의 권한을 잃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침례교 교단지 백티스트 프레스가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왕국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천상의 마음’(heavenly-minded)을 가지고 있어서 지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지상의 마음’(earthly-minded)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교회가 정치와 인종에 의해 분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자”라고 촉구했다.

일리노이 백티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에반스 목사는 “이러한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남침례교 연차총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된 이후 열리게 됐다고 CP는 전했다. 지난해 인종적 불평등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인종적 비판 이론(CRT)와 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와 관련해 교단 내에서 논쟁이 일어났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남침례교는 지난 2019년 비판적 인종이론을 채택했지만 1년 후 남침례교 모든 신학교 총장들로부터 이 이론을 폐기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자 일부 흑인 침례교회들은 교단을 탈퇴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반스 목사는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인종적·정치적 분열을 극복 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하나님은 색맹이 아니지만 피부색을 개의치 않으신다”라며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의 발전이다. 우리는 인간의 정치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성회침례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내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2세대목회, 이민자정착을 위한,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수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주요예배 오후 7:00

김성지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커뮤니티를 살리는 예수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주요예배 (분당) 저녁 8:30
리조트예배(분당) (소셜) 오전 11:00

정정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만민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4부예배 오후 7: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백이 함께 말하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1:00

신승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개혁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
EM예배 오전 11:00 EM4성경공부 오후 7:30 (금)
종교개혁기념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개혁 오후 7:30 한여름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벨리제물 MP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교육부 후원예배
금요영성집회 오후 7:30 종교개혁 기념 5:30 (수요주중예배: 오후 6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종교개혁 기념 11시 (금요주중예배: 오후 7:30)
1584 Hiram St., Northridge, CA 91326 EM: 오후 1:30
(T. 818)936-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년부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년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쁘고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이스라엘 새 총리 당선 소식에 美 복음주의자들 “계속 지지”

“미래의 모든 정부들과 긴밀한 관계 맺길”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신임 총리. ©인스타그램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10년이 넘는 집권 끝에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집권 말기 부패 혐의 논란이 일었던 네타냐후 총리는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존경을 받았으나,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서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신임 총리는 60대 59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후, 오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종식시켰다.

신임 총리는 아랍계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과도 동맹을 맺고 있어, 팔레스타인인과 긴밀한 관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의 백만장자로 알려진 베네트 총리는 팔레스타인 독립에 반대하며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을 지지한다.

CP는 이스라엘 신임 총리 당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세계 지도자들 간 만남에 동참해 온 복음주의 작가 조엘 C. 로젠버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얽매어는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축복하려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성경적 명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로젠버그 작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으기 위해 ‘조슈아 기금’(The Joshua Fund)을 설립했다. 그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그는 베넷 총리와 아이르 라피드(Yair Lapid) 외무장관이 복음주의자들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기독교지도자회의(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회장이자 전 국제자유종교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조니 무어(Jonnie Moore) 목사는 신임 총리 발표 후 이스라엘과의 우정이 정치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을 독려했다.

무어 목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의 힘을 찬미하는 것을 넘어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복음주의자들이 개입을 한다면, 매우 신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자들은 누가 총리가 되든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이스라엘 정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대로 이스라엘 비행기를 탈 것이다. 그 때까지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케 헤일리(Nicky Haley)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독교인 연합’(Christians United for Israel) 창립자인 존 해기(John Hagee) 목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해,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새 총리 등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일요일 자신의 트위터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안보, 외교, 경제에 기여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그는 나와 마이클, 그리고 미국의 개인적인 친구다. 난 그와 사라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남겼다.

그녀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부정할 수 없는 유대를 약속한다”며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경고하고, 이를 재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죽음의 소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력해 미국을 핵 함의에서 빼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핵 함의에 재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한 가지는 이란에 돈을 주고 세계가 더 위험한 곳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강해진 기자

예정 합동 “아프간 내 총회 소속 선교사 철수 권고”

고 있어, 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동포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예정합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내온 공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회 소속 선교사들의 철수를 요청한다고 지난 14일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예정합동은 “미군·NATO군이 9월 까지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아프간 내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동포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종교단체(선교단체) 대표 (경유)
제목 아프간 내 우리 선교단체 철수 요청

-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미군·NATO군이 9월까지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아프간 내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동포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현재 아프간 내에는 선교사 약 2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외교부는 주아프간 우리 대사관을 통해 철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가 연락을 회피하는 등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프간 내 치안 악화로 삼기인들의 신변 안전이 극히 위험에 처해있음을 감안하여 소속 선교사들의 아프간 조속 철수를 강력히 요청하며, 동 내용을 관련 기관(단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정합동 측에 보낸 공고문 ©예정합동

이상민 의원, 끝내 '평등법' 발의... 기독교계, '우려' 표명

성적 지향 등 명시하고 적용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회의사당 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맥락을 같이하는 '평등법'을 끝내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등법에는 이 의원 외에 22명의 민주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날인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에 이르며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긴 터라, 관련 법안들이 여론의 흐름을 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중적인 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차별금지법안이 그 적용 범위를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대다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정안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 조항은 이 법안에서 배제했다.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 원칙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향후 입법 논의를 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에 대신,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당론으로 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발의에 기독교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듯하나 더 큰 목적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에 있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더 큰 차별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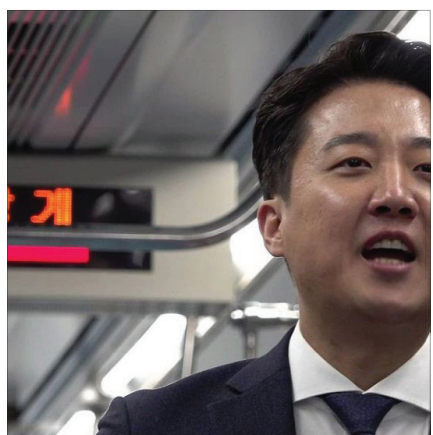
한편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상민, 김용민, 남인순, 박성준, 박용진, 박주민, 송갑석, 윤영덕, 이수진(서울동작을), 이수진(비례대표),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홍익표, 최혜영, 권인숙, 양경숙, 양이원영, 유정주, 윤미향,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이대웅 기자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대부분 사안에 공감" 발언 후 논란 의식한 듯

기독교적 관점 등에서 담론 아직 혼재 입법 단계 이르는 사회적 논의 부족 차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은 공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인스타그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별금지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다른 방송에서 "(법안의) 대부분 사안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답변이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자,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당장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답변이,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분도 있어서 혼재되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되어서 다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다만 보수 진영도 젠더 이슈를 외면하지 않고 다루서 저희가 상당히 그쪽에 지지세를 획득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다루야 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논의는 진행되 지금 처리하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보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 법안에 우려를 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14일 KBS1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숙성된 논의가 있었다. 법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송경호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오찬양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설기초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행위로 열매를 맺어 생애를 영구케 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으로 새 생명을 얻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랑의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0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회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김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성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에 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1년 학위수여식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위수여자

명예목회학박사:진건호목사 | 명예신학박사:이학진장로
신학석사:손사라목사 | 교역학석사:채수전,김나오미,백선경,로완리
신학사:임정열,안정희

일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LA 찬양교회 (김성대목사사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 2021학년도 여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6월 21일 개강**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내 생각에는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아만을 따라가서 은 한 달란트와 외국에서 온 최고 명품 옷 두 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은 은을 두 달란트나 주었고, 게하시는 더 넉넉하게 받은 예물을 집에 잘 숨겨 두면서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잠깐일 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잠16:9)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까지 주셨지만, '내 생각'에 붙들린 게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져, '내 생각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실패와 영원한 사망의 끝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 생각에는" 하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 되신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강한 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므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번 주간 Summer Start 특별새벽기도와 다음 주일오후 기도원 성령대명회를 앞두고 나는 내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 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새벽예배를 통해 열왕기하5장에 나오는 나아만에게 임한 기적과 믿음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던 나아만의 독백이 계속 여운을 남기며 맴돕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여서 교회에는 나왔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다는 원함이 있는데도, '내 생각에는' 기도하지 못 하는 이 핑계 저 핑계가 가득합니다.

십자가로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용서할 수 없다는 '내 생각'이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됨이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들' 때문에 주님은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내 가족이 정말 다 행복해 지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이 땅과 열방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의 귀한 예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사환 게하시의 '자기 생각대로' 나

습관과의 싸움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생활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신앙의 습관이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그 몸에 거룩한 습관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성숙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본문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새벽 이른 시간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셨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습관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거룩한 영성과 신앙의 습관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찰스 두히그(Charles Duhigg)가 쓴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에는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인터뷰에서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신앙은 한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연속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 19과의 긴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습관들이 신앙에 열정과 참 믿음을 있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다듬어 나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습관이 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5%는 결정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 처럼 습관은 우리에게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에 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습관은 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습관이 재능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 쉬지 않고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에 힘쓰기도 한다. 그렇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내는 자투리 시간도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습관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나 자신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 사상가중 으뜸으로 꼽히는

드린다. 아울러 나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이준수 목사 (남가주주일알선교단 영성문화 사역팀장)



이준수 칼럼

'황금박쥐' 노래에 깃든 아버지의 사랑

황금박쥐~~ 아주 먼 옛날 내가 2살, 3살 무렵 아버지가 나에게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다. 당시 나는 뇌성마비 장애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해서인지 밤에 잠을 못 자고 내내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도 밤을 꼬박 새워가며 나를 달래기 위해 애쓰셨는데, 특히 아버지는 우는 나를 안고 "황금박쥐~ 황금박쥐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 하시며 그 시절 최고로 유행하던 TV 만화영화 "황금박쥐" 주제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불러주셨다고 한다. 이렇게 한참동안 황금박쥐 노래를 부르고 나면 어느덧 내가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던다.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추억하게 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황금박쥐 노래다. 당시 나이 30대 초반의 젊은 아빠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아들을 품에 안고 이 노래를 부르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나 역시 지금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고 보니 그 시절 아버지가 흘리셨을 눈물의 깊이가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단 한 번도 꾸중하신 적이 없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거나 장차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신의

소망을 말씀하신 적도 없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셨고 인정해주셨으며,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시고 계시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속 썩인 일 없이 잘해왔기 때문에 야단칠 일도 없었다고 하시지만, 일생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아들이 당신 말씀에 더욱 큰 부담을 느낄까 봐 일부러 하고 싶은 말씀도 자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버지가 나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딱 한번 있는데, 내가 고3이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고 오셔서 늦은 시각까지 공부하고 있던 날 보시더니 내 손을 꼭 잡으신 채 눈물을 흘리시며 "준수야, 널 보면 내 마음이 항상 아프고 안타깝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다 해줄게. 내가 네 인생을 모두 책임져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모두 책임져주시면 어떡해요? 내 힘으로 일어나야죠."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약속 드렸건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아버지는 최대한 오랫동안 내 뒷바라지를 해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시며 체력을 단련하고 계신다.

이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단단하고도 끈끈한 신뢰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대할 때가 가장 편하다. 전화 통화할 때도 어머니는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셔서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 아버지랑은 부담이 전혀 없이 대화가 술술 넘어가며 말도 아무 막힘없이 제일 잘 나온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쌍둥이 남매인 '조애나', '브라이언'을 거의 혼내지 않고 최대한 너그럽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니, 노력할 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아예 화가 나지 않는다. 물론 애들 엄마는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물러 터졌다고 불만이지만 야단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떡하랴? 또 이미 엄마에게 충분히 혼났는데 아빠한테까지 싫은 소리 들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죽고 슬프겠는가?

나이 40이 다 되어 쌍둥이를 낳아 과연 애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터전을 잡는 것까지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척 제한되었지만, 언젠가 주님의교회 '김병학' 담임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말을 꼭 해주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올해 파더스 데이(Father's Day)를 맞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한량없고 조건 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 고관절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가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도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멀티슈
 주일제전
 2021년
 공미라고
 마그네틱 원형물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0년만 시공하면 원가보다 저렴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27:21-44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중략)...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곁에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42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5:2-3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합니다(행25:21). 그래서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9-11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 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감(靈感)에 겨울을 지나고 떠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떠나자고 했습니다. 당당사는 로마제국시대 백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을 떠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안개와 흑암속에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더미 같은 폭풍우에 밀려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열나흘 동안 잠도 못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가슴을 졸이며 지나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행27:18-20).

이때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행 27:21-26)”했습니다.

열나흘 쯤되는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파도에 쫓겨 다니다가 밤중 쯤되어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육감으로 물을 재어보기 위해 줄에 추를 단 자같은 것을 바다에 늘어뜨리는데 이십 길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길은 보통 180cm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있으니 열다섯 길이 되니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하여 배 뒷전(고물)에다가 배를 움직이지 않게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도망하기 위해 뱃머리(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구명정)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이들이 여기 없으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소리치니 군사들이 거룻줄을 잘라서 그 배마저 바다에 빠뜨리고 맙니다.

날이 새어가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이때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배가 어느 곳엔가 정착하지 않은 상태였어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두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한배를 타고 험준한 좌악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가고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배에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도바울과 같은 목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백칠십육 인이라고 숫자를 기록하신 이유는 많은 인원임을 밝히기 위함과 떡을 나누어 먹기 위해 숫자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 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고 날이 새어 가는데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 배를 그곳에 댈 수 있을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고 바람에 밀려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으로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양쪽에서 거친 파도

가 밀어 붙이니까 배가 견딜 수 없이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에 탄 이백칠십육 명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성취시키시면서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하는 말을 100% 하나님이 하신 말로 믿고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배가 섬이든 육지든 그저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있는 계획이 이런 섭리를 위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가니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미리 죽이자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제국의 법에는 군인이 죄인을 호송하다 놓치면 그 호송병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동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하니 모든 사람이 다 육지에 올라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행27:43-44).

그 배에 탄 선원들이나 장사꾼들, 군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양떼입니다. 그곳에 사도바울이라는 목자를 세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자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에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백칠십육 명이 탈 수 있을만한 배는 아주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장사꾼들도 있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의 값어치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풍랑에 다 없어지더라도 중요했던 것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탄 배의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춥고 몸이 떨려 불을 지폈더니 독사가 나와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뱀을 털어내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죽지 않자 그것을 지켜보던 그 섬 원주민들은 바울을 사람같이 생긴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원주민 추장집에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던 바울은 옛 추장의 병을 고쳐 살려주게되고 그 마을의 병자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병들을 고침받게 됩니다. 이렇듯 목회는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석 달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멜리데 섬은 모두 복음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멜리데부터 복음화 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배가 오고 로마로 가기 위한 식량을 섬 주민들이 (병고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해 주신것을 감사해서) 넉넉히 채워 실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는 곳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붙여준 백성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살리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사도바울을 통해서 다 살리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생과 힘겨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포함되어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I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I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I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유튜브 예능 <머니게임> (下)

한국교회, '생존게임' 허덕이는 청년 세대를 어떻게 도울까

<머니게임>, 이전투구하는 청년 세대 가련한 자화상 그러나 국가와 사회는 이들 돌보는데 소홀한 게 현실 사회 노예화된 이들 해방시키는 지혜, 교회사에 담겨 영혼의 생명뿐 아니라, 현실적 삶의 수단까지 도와야

◆<머니게임>과 일본 빙하기 세대: <머니게임>에 앞선 생존물,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라이어 게임>

<머니게임>과 유사한 설정을 가진 작품들은 여럿 존재했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계 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머니게임> 설정 중 상당 부분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만화 <라이어 게임>와 유사하다. 참가자들을 밀폐된 시설에 모으고 서로 경쟁하게 해서 상금을 주거나 빚을 지운다는 점에서는 <도박묵시록 카이지>의 설정과도 일부 닮아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도박묵시록 카이지>(1996년 연재 시작)와 <라이어 게임>(2005년 연재 시작, TV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음)의 연재 시작 시점이 모두 헤이세이 불황기, 소위 잃어버린 10년(1992-2007) 중이라는 점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1980년대 내내 이어진 거품경제, 헤이세이 버블이 꺼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심각한 부채위기를 맞이했다.

기업들의 종신고용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일부 고향력 구직자들을 제외한 청년 세대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전전했다.

당시 얼어붙은 취업 시장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심적, 경제적 고통과 좌절감을 표현한 말이 바로 '빙하기 세대'이다.

'빙하기 세대' 가운데 생겨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니트족(취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이들) 급증과 혼인을 급감이 있다.

그들의 부모 세대, 즉 취업과 종신고용이 보장되었던 단카이 세대(전후 베이비붐 세대)와 자신들의 삶의 처지가 비교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결혼마저 포기한 젊은이들이 급증했다. 니트족 가운데 일부는 더 극단적으로 폐쇄된 삶을 사는 히키코모리가 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도박묵시록 카이지>나 <라이어 게임>은 빙하기 세대 젊은이들의 삶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설정 덕에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접어두고 밀폐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거나, 끊임없는 실직 위기 속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갔다.

이렇듯 각박하고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젊은 독자들에게 위로와 대리만족을 주어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 두 서바이벌 작품의 성공 비결이었다.

한국은 약 20년 정도 격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와 사회 발전 궤도를 따라간다. 현재의 한국 청년세대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 일본 빙하기 세대가 겪었던 문제들을 거의 유사하게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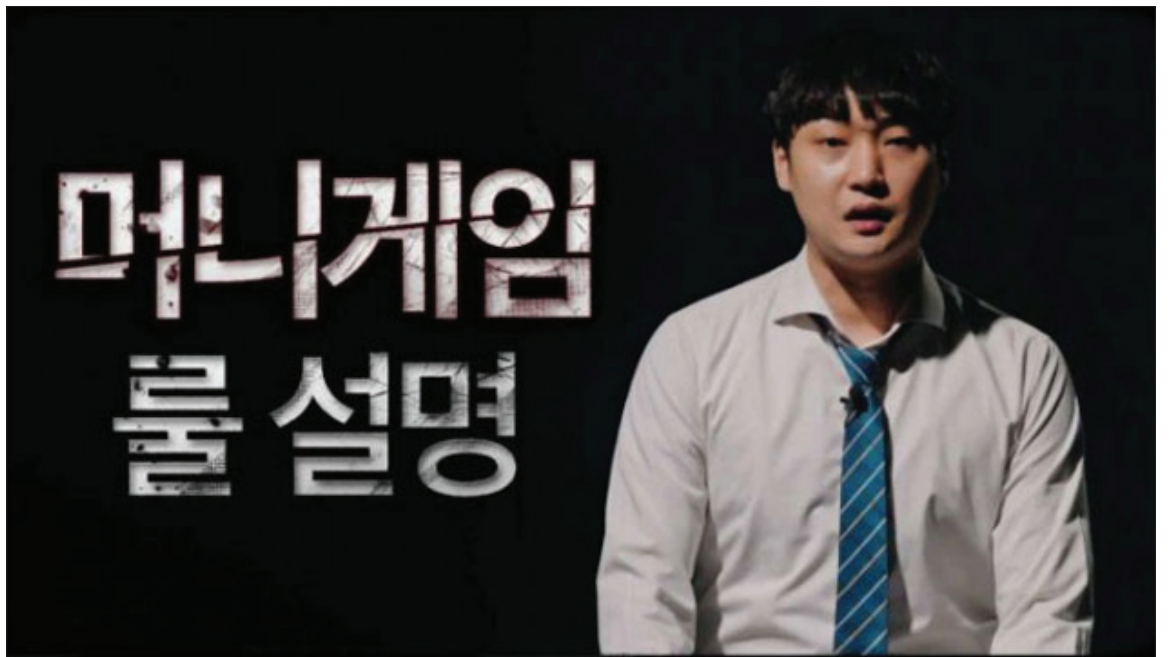
코로나 확산은 이미 심화되어 있던 이런 문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N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머니게임>과 같은 작품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이다.

이 세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타격을 겪는다. 우선 동세대에 편만한 좌절감 때문에 앞날에 대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단념에 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나은 앞날을 위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

여기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사기나 갈취 등 범죄행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양태의 투기나 도박에 뛰어드는 행태까지 포함한다.

◆<머니게임>과 한국 N포 세대: 생존게임에 불몰린 젊은 세대를 해방시키는 교회



최근 방송계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유튜브 웹예능 <머니게임>.

<머니게임>에서 출연자들이 보인 앞날없는 행동들, 그리고 상금을 차지하려는 계략과 갈등, 음해 시도 등은 모두 해법 없이 가로막힌 삶의 갈림길에서 택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유일한 저항의 방편이다.

그런 행동으로 빠져드는 젊은 세대를 무조건 질책하기만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상황이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오늘날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40대 이상 기성 엘리트 계층의 책임이 크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경제적 한계도 큰 원인이지만, 그런 한계 앞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타인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후세대를 위해 봉사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했던 탓이 더 크다. 그들이 젊은 세대들 <머니게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 가지도 못한 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가상화폐 같은 위험자산, 투기자산에 '영끌' 투자를 하는 것 역시 한국 젊은 세대의 해법 없는 앞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저항과 몸부림이다.

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저항 방식이 올바

르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의 압박을 극복하는 길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실패의 위험이 큰 개인의 도박과 같은 이익 추구가 아니다.

그보다는 먼저 기성세대 엘리트들이 주입한 왜곡된 삶의 가치를 해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웰빙'이라는 말로 포장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윤택함을 이룩하는 것을 '잘 사는 것'의 기준으로 삼는 세뇌를 벗어나야 한다.

삶의 윤택함을 무조건 죄악시키는 금융주의적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삶의 윤택함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맹목적 욕심, 반성없는 욕심을 조절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소유가 성공한 삶의 절대 기준으로 인정받는 세대, 이러한 세태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그 기원은 바로 그 부모와 선배 세대 엘리트들로부터 유래된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사실상 가질 수도 없는 것을 성공 기준으로 정해 놓고, 그 기준 안에 들도록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경제적 질서에 예속되어 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예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세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도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 직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도와 봉사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강력한 복지 기능을 이행해 왔다.

청년 세대가 현실판 <머니게임>의 굴레에 예속되어 고뇌하는 현재, 교회가 그들에게 신앙을 통한 삶의 참된 해방과 초월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과거 교회들이 갖췄던 구제와 복지 역량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혁신해서 회복해야만 한다.

국가와 사회가 돕지 못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삶을 교회들이 돕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야 한다.

음지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청년 공동체 운동을 일으키려 힘쓰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회는 언제나 그랬듯 희망적이다. 이는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전인적 구원을 위해 힘쓰라 가르치는 복음의 정신과 지혜를 따르는 이들이 당연히 추구하는 실천이다.

단지 이런 노력들이 초심을 잃고 기업화된 교회들, 복음이 가르치는 가치를 잃고 세속의 기성세대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오히려 예속되어버린 일부 교회들 때문에 묻히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결언하자면, <머니게임>은 한국의 기성 세대가 세워놓은 이기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치체계에 얽매어 좌절과 불안의 부정적 정서 속에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청년 세대의 가련한 자화상을 보여준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돌보는데 소홀하다. 교회사에는 이렇게 노예화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지혜가 담겨 있다.

교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전력하는 이들에게 영혼의 생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수단들까지 찾을 수 있게 힘써 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생존게임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를 돕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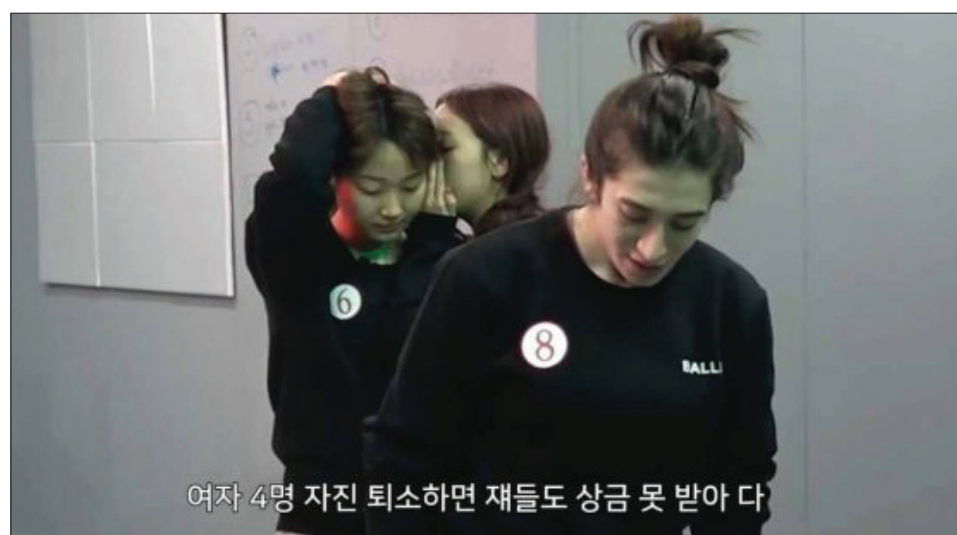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일본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와 드라마 <라이어 게임>. 빙하기 세대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들.



1910년대 부산 나환자병원 건립 기념사진. 한국 초대교회는 국가 전체의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사정에도, 믿음의 삶에 전력질주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현실적인 삶까지 지탱하는 강력한 복지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기적인 계략과 이전투구가 지배하는 <머니게임>. 오늘날 한국 젊은 세대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여주는 풍자극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허구성 완전 분석

故 이명영 교수의 역작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오래 전 논문 형태 연구서 대중들 접근 쉽게 편집해 김일성 독립운동사 왜곡, 민족사 전체에 대한 모독 <세기와 더불어>, 北 김정일 세습 정당화 수단 이용

김일성 연구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故 이명영 전 성균관대 교수의 김일성 회고록 비판서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원제 김일성 회고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사거 21년만에 출간됐다.

이 책의 출간은 최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간이 허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출판사 측은 오래 전 논문 형태로 나왔던 연구서를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게 편집 출간했다.

김일성 회고록을 6권까지 분석한 저자는 숙환으로 유명한 탈리하기 전, “김일성 회고록이 독립운동사를 왜곡 날조한 사실은 ‘민족사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입장”으로 이를 낱알이 해부한 연구서를 남겼다. 김일성 회고록 7-8권은 자서전 형식이 아니라 사후에 나온 이른바 ‘계승본’이어서, 이 교수는 사실상 김일성 회고록 전체 분석을 완료한 셈이다.

저자는 북한 문헌을 일일이 비교 대조함으로써 인체를 해부하듯 ‘김일성 회고록’이 벌인 조작과 왜곡의 실상을 파헤쳤다. 부제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거짓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 최고 작가들을 수년 간 동원해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조작함으로써, 김정일 세습을 정당화하는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는 국가보안법 7조 ‘고무 찬양 금지조항’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법원이 이미 이 책에 대해 지적 표현물로 판시한 바 있음에도, <세기와 더불어>가 불법적으로 출판된

것은 국가 가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입장에서 맞대응 성격으로 출간된 것이다.

서문을 쓴 김광인 박사(북한 권력승계 연구 전문가)는 “김일성 회고록에 관한 한 최고의 분석서일 뿐 아니라, 이후에도 이 정도의 연구가 나오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은 <세기와 더불어> 1-2권을 분석한 1부 ‘1% 사실로 날조한 99% 허구의 가계우상화’, 3-4권을 분석한 2부 ‘업적 날조로 빛바랜 정밀한 역사 기록’, 5권을 분석한 3부 ‘김정일 후계 작업 위한 방대한 역사 조작’, 6권을 분석한 4부 ‘조선광복회와 보천보 사건은 조작의 결정판’ 순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故 이명영 교수는 북한 연구 1세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김일성이 일제 시대 활약한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이며, 일제 시대에는 ‘4인의 김일성’이 있었다는 ‘김일성 가짜설’의 결정판인 <김일성 열전>을 저술한 바 있다.

함경남도 북청에서 출생했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3년까지 교수로 재직했다. 1963-1970년 경향신문, 1971-1975년 중앙일보에서 각각 논설위원으로 일했으며, 자유지성 300인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다음은 일부 내용.

79쪽 이승만 모독

“이승만이 모스크바에 가서 거역의 재정원조를 요구했다가 목살당하자 반소련미 일변도로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도 들어 있다. 이승만은 일본의 동북아 세력 팽창



도서유통 사이트 알라딘에 공개된 회고록 표지. 4월 26일부터 구매할 수 없는 상태다. ©홈페이지

을 저지키 위한 방도 모색을 위해 1933년 7월 19일에 모스크바에 갔다가 그날로 퇴거명령을 받고 다음 날에 떠난 일은 있다. 이유는 비자가 잘못 발급되었다는 것이었다. 국제당에 재정원조 운운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이다.”

227쪽 김구 모독

“평양에 갔을 때 김구는 김일성의 인격에 감복하여 조선을 바로잡을 영웅은 김일성밖에 없으므로 자기도 김일성을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날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김구가 임시정부의 인장을 김일성에게 정중히 올렸는데 김일성은 민중의 신임만 있으면 되었지 인장은 가지고 가라고 사양했다고까지 날조를 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김구는 김일성에게 일단 서울에 갔다가 다시 평양으로 올테니 그편 여생을 보낼 과수원이나 하나 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 것이다.”

19쪽 반한세력 분쇄해야

“김일성 회고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1. 2. 3 논문은 이미 발표되었고 4 논문의 교정을 마쳤습

니다. 교정은 벌써 마쳤는데 읽느라고 전달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록 전8권 중 제6권까지 완벽한 분석을 마친 것입니다. 제7·8권이 남아 있으나 그것을 마저 할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군요. 제 논문 1, 2, 3, 4를 합본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여 저들의 반한사관을 여지 없이 분쇄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입니다.”

30쪽 친북세력 득세경고

“남한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대북 추종주의자 혹은 주사파라 일컫는 이 사람들은 세련된 전술로 요소요소에 다 박혀있다. 언필칭 민족과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개미 발자국 소리도 놓칠세라 곤두세운 감각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정권과 혈연적 혹은 사상적 혹은 조직적 유대 때문에 인생 노선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다.”

144쪽 김정일 출생지 날조

“1983년 3월에 나온 『백과전서』까지는 백두산 밀영이 곰의 굴에 있었다고 했으니 그 이후부터 1991년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사령부 밀영의 위치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 것이다. 소백수 곰의 밀영의 위치는 김 주석 자신이 특정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귀틀집을 짓게 하고 거기가 조선혁명의 사령부요 김정일의 생가요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점이 언제인가 알아봤더니 김정일이 45세 되던 1987년 2월이었다. 아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제일 잘 알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온 세계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마구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일 최고의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이대웅 기자



장대현교회가 있던 자리에 들어서 우상화에 이용되고 있는 김일성 부자의 대형 동상.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1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8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gideonbrothers.org

(제2차) 8.15 광복 76주년 기념 글로벌복음통일전문 선교컨퍼런스 [KONA 2021]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Conference [KONA2021]

"북한도 수년내 부흥케 하소서, It Will Surely Come!" (Hab2:3)

북한선교의 다양한 전문가들(역사, 기도, 정치, 경제, 인권, 구제, 지하, 문화, 영화, 교육 등)의 지혜와 전세계의 부름받은 청년들과 연합으로 복음통일의 길로!



(축사)
로렌 커닝햄 총장
YWAM



(격려사)
주선애 교수
장신대명예

- 일 시 : 2021년 8월 9일(월) ~ 8월 14일(토)
- 장 소 : 하와이 KONA(선착순 마감)
- 문 의 : T(425)775-7477, 기독교일보 T(213)739-0403
- 대 상 : 한어/영어권 누구나(영어동시통역)
- 참가방법 : (현장대면 또는 ZOOM으로) 맨 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회장)
임현수 목사
TMTc



(연합)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원로



(디아스포라)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복음통일)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회개_신사참배)
오창희 목사
흰돌교회



(통일경제)
신창근 교수
'통일은대박이다'



(중보기도연합)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북한농업)
김학송 선교사
전)평양과기대



(역사교육)
황준석 목사
Friendship Council of U.S



(탈북구출/북한인권)
천기원 목사
두리하나



(통일법)
송인호 교수
한동대학교



(통일정치리더십)
김선진 교수
전)통일부흥보팀장



(북한지교회역사)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북한인권영화)
윤학렬 감독
'철가방우씨'



(영어권통일교육)
채지미 목사
NT2 Mission



(간증)
김연영 자매
2015년 탈북



(진행)
황현주 아나운서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복음통일네트워크)
박상원 목사
기드온동족선교(GBMW)



주최: Global Expert Network Reunification Korea Mission

주관: NT2 Mission 협찬:미주기독교일보 생중계: